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분석

HEADLINE :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움.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 추론을 요구하는 답지로 구성된 문항들이 있어 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출제 경향

가. 총평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어과 전 영역에 걸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하였다. 지문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새로운 형식의 문항 형식을 선보였던 작년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올해 실시된 6월, 9월 모의평가와도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전년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정보량이 적지 않은 편이며 독서 영역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을 적절히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기조에 따라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졌던 소재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다. 특히 문학 영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졌던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어 체감 연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서 영역의 경우 유사한 제재의 지문이 활용되었다. 화법, 작문, 문법 영역에서도 EBS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개념, 원리, 제재 등이 두루 활용되었다.

* 출제 경향 특징 3가지

1. 전년도 수능 및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제 흐름 유지
2. 학생들이 전년도 수능과는 비슷하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다고 느낄 것으로 예상
3. EBS 연계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EBS 연계 교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출제

나. 난이도

전년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하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18학년도 수능 (2017.11시행)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8.6시행)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18.9시행)
2019학년도 수능	대체로 비슷함	약간 어려움	보다 어려움

대단히 어려운 문항은 대체로 없었으나 정보량이 많고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론을 요구하는 답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세부 출제 경향

1) 영역별 대표 문항

화법: 3번 -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의 의견 분석하는 문항

작문: 4번 -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쳐 쓰기 계획 점검하는 문항

문법: 13번 -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자료에 대해 탐구하는 문항

문학: 26번 -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해당 장면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묻는 문항

독서: 31번 - 만유인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

2) 하위 평가 영역별 특징

‘화법과 작문’의 경우, 라디오 방송을 다룬 (1번~3번)과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 상황(4번~7번)이 출제되었다. ‘자존감’과 관련된 라디오 방송 관련 지문에서는 말하기 방식, 방송 진행을 위한 계획, 게시판에 올라온 청취자 반응 분석 등이 출제되었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 지문에서는 고쳐 쓰기 계획, 기사문 추가, 발화의 성격, 담화의 특징 등을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되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에 대한 이해 및 원활한 화법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화법 상황과 작문 상황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어서 언어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작문’의 경우, 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초고를 고쳐 쓰는 4번 문항과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메모와 자료, 학생이 쓴 글을 다룬 문항(8번~10번)이 출제되었다.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4번)은 지문의 회의 내용과 기사문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지문에서는 초고 작성을 위해 작성한 메모가 어떤 글쓰기 전략에 따라 글에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문항과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쓸 때 그 내용을 추리해 보는 문항 등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글을 쓸 수 있는 작문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4번은 화법과 작문을 통합하여 구성한 유형으로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목의 특성과 취지를 잘 보여 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번의 경우 글쓴이의 의견을 반박하는 형식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한 참신한 문항이었다.

‘문법’의 경우,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국어에 대한 탐구 능력’, ‘국어사, 국어 규범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5개 문항(11번~15번)을 출제하였다. 음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11번)과 ‘ㄹ’로 끝나는 명사에 나타나는 국어사적 사실을 토대로 국어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는 문항(12번~13번),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묻는 문항(14번), 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15번) 등이 출제되었다. 특히 13번 문항은 지문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와 연결하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통시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도가 있는 문항이었다.

‘독서’의 경우,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개념, 원리, 과정 등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독서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1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매매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 사회 지문(16번~20번), 서양의 우주론의 전개와 그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을 다룬 과학 지문(27번~32번), 명제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을 다룬 인문 지문(39번~42번)이 출제

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문학’의 경우,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의 이해, 문학 작품에 대한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1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예년과는 약간 다르게 현대소설 ‘천변 풍경(박태원)’과 시나리오 ‘오발탄(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21번~26번)을 함께 엮어 출제하였다. 현대시는 ‘출생기(유치환)’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을 엮은 지문(33번~35번)이 출제되었고, 고전소설은 작가 미상의 ‘임장군전’(36번~38번)이 출제되었으며, 고전시가로는 ‘일동장유가(김인겸)’(43번~45번)가 출제되었다. 각 갈래마다 작품 감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보기>로 제시되었다.

2. 난이도

가. 총평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고 전년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독서와 문학 지문 대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근거하여 출제되었고 특별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항이 많지 않아서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충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험생들이 파악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다수 문항은 상당한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보면 화법, 작문, 문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문학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독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나. 과목별 세부 난이도

1) 화법

화법 영역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담화 유형인 방송 상황과 회의 상황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문항의 유형은 대부분 그동안 다루어졌던 유형이 많아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였을 것이다. 다만 지문을 바탕으로 청취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문항 형식이 다소 낯설 수 있었으나 수험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는 문항들이 일부 있어 시간 안배를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2) 작문

작문 영역은 고쳐쓰기 문항, 내용 추가 문항,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자료 활용 문항, <보기>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글쓰기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유형들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의 내용도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 ‘로봇세’ 등 수험생에게 친숙성이 높은 제재가 제시되고 있었다. 다만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고쳐 쓰기를 계획하는 문항의 경우 기사문의 성격과 회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문항이어서 학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문항의 설계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3) 문법

문법 영역은 최소 대립쌍을 통한 음운 체계의 수립, ‘ㄹ’로 끝나는 명사를 통해 살펴 본 국어의 변화 과정, 문장 성분 탐구, 사전 만들기를 통한 단어의 의미 탐구 등 문법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다. 주어진 문법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어서 수업 활동을 문항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ㄹ’로 끝나는 명사를 통해 살펴 본 국어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언어 자료를 탐구하도록 한 13번 문항은 지문에서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도록 한 점에 서 변별도가 있어 보였다.

4) 독서

독서 영역은 사회, 과학, 인문 영역의 지문이 제시되었다. 과학, 인문 영역의 지문은 EBS 교재를 바탕으로 연계된 지문이었고 사회 지문은 EBS와 연계되지 않았다. 평소 EBS 교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접해 본 수험생이라면 독서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다소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지문은 매매 계약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에 대한 법적 이해를 다루었는데, EBS 연계 교재와 연계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16번 문항, 채권과 채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의 사례를 이해하는 17번 문항의 경우 지문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정답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번은 추론을 요구하므로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었다. 과학 지문은 서양 우주론의 전개와 그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을 다루고 있는데 EBS 연계 교재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험생에게 독해 부담은 적었을 것이다. 31번 문항이 고난이도로 출제되었는데, 만유인력을 비롯한 지문의 핵심 개념과 <보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항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우수한 추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 지문은 명제, 가능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 과학 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들도 적절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문학

문학 영역은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를 함께 묶은 복합 지문, 현대시, 고전 소설, 고전 시가(가사) 등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소설 ‘천변풍경’과 시나리오 ‘오발탄’이 역여서 출제되었고,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는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현대시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한 작품이어서 수험생들은 대체로 큰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았던 유치환의 ‘출생기’는 낯선 작품인데다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감상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작품을 접근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계는 되었지만 문학 26번의 작가가 서사적 구성의 선택과 결합의 방식을 활용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해 문제의 경우 실제 정답을 찾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서사를 통한 사건 구성의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점에서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항들은 대체로 평이했으며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문학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전소설의 경우 감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소 까다롭게 느끼는 고전시가 ‘일동장유가’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된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하였고 각주로 어휘 풀이를 충분히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항도 다소 평이하게 구성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 영역의 경우 대체로 예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보인다.

3. 문항 분석

가. 우수 문항 분석

- 4번(작문): 담화 상황과 작문 상황을 한 세트로 구성한 영역 통합형 문항으로, 실제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문항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문항으로 평가된다. 기사문을 작성하고 작문 맥락과 글의 유형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글을 완성하는 과정은 학교 현장의 수업 과정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화법, 작문 등 각 영역이 독립적인 문항으로 구현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영역 간 연계와 통합을 추구하는 문항 설계 방식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고난도 문항

- 26번(문학): 이 문항은 복합 지문의 두 작품에서 나타난 서사적 상황에 대해 선택과 결합을 통해 다양한 사건 구성 방식을 취하는 작가의 작품 속 표현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과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서사의 선택과 결합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고 낯설어 개념에 대한 접근부터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연계 교재에서 출제된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복합 지문으로 구성된 두 작품을 함께 연계해서 접근해야 하는 점에서 문항의 총제적인 내용 파악(문항, 보기)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한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져 문학적 감상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1번(독서): 이 문항은 만유인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 자료를 제시한 후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게 구성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지문과 하나씩 대응해 가며 원리를 적용하고 정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해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유형 문항

- 10번(작문): 이 문항은 찬반이 분명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고,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이를 고쳐 쓰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글에 대해 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지를 문항으로 구현해 냈다는 점에서 참신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13번(문법) : 이 문항은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 변화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보기>를 통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자료를 제시

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지문을 제시하고 자료를 탐구하도록 하는 유형은 기존에도 출제되었으나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며 이해하도록 한 문항 구성은 새로운 접근 유형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판단된다.

- 26번(문학): 지금까지의 복합 지문 문항들은 문학이론과 현대시를 함께 구성하는 유형의 작품들이 많았으나 이 문항은 현대소설과 시나리오의 융합을 통해서 문학 콘텐츠가 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접근을 묻는 유형의 문항으로 이전과는 조금 색다른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소설 속의 영화 장면 구성 방법에 대한 유형의 문항들은 기존에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서사가 사건의 선택과 결합이라는 조금은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문학 교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할 과정을 제시한 점에서 색다른 문항으로 보인다.

4.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가.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내용 요소
4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140쪽~143쪽/1번	문항 아이디어 활용
5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140쪽~143쪽/3번	문항 아이디어 활용
6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92쪽~94쪽/1번	문항 아이디어 활용
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82~18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82~18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1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82~18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11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198~199쪽	개념·원리 활용
12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206쪽	개념·원리 활용
13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220~223쪽	개념·원리 활용
14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 · 작문 · 문법	211~213쪽	개념·원리 활용
21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 / 281~286쪽/4번	지문 활용
22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	지문 활용
23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	지문 활용
24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 281~286쪽/4번	지문 활용
25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81~286쪽/4번	지문 활용
26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 281~286쪽/4번	지문 활용
2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66~67쪽 164~165쪽	지문 활용
2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66~67쪽 164~165쪽	지문 활용
2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66~67쪽 164~165쪽	지문 활용
3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66~67쪽 164~165쪽	지문 활용
33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1~103쪽	지문 활용
35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1~103쪽	지문 및 문항 아이디어 활용
3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0~202쪽	지문 활용
3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0~202쪽	지문 활용
3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0~202쪽	지문 활용
39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5~76쪽	지문 활용
40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5~76쪽	지문 활용
41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5~76쪽	지문 활용
42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5~76쪽	지문 활용
43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79~81쪽	지문 및 문항 아이디어 활용
44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79~81쪽	지문 활용

나. 체감 연계도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나 제재, 개념과 원리 등이 골고루 활용되어 전반적인 체감 연계율은 예년 수능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은 문학 영역의 체감 연계율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의 경우 영역 간 교차 연계가 되기도 하고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몇몇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체감 연계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 영역의 경우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많이 활용되어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핵심 제재가 활용되었으나 지문의 내용이 확장, 심화되어 다루어진 까닭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문에 대한 체감 난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연계 유형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약 71%에 해당한다. 4~7번은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항이고, 8~10번은 핵심 제재, 논지, 문항 유형을 고르게 활용하여 구성한 경우이다. 11~14번은 교재에서 설명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21~26번은 지문을 활용하거나 지문을 다른 갈래로 각색한 제재를 활용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여 출제되었다. 27~32, 38~42번은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지문을 재구성한 경우이다. 33, 35~38번, 43~45번의 경우에도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한 문항들이다. 영역별로 보면, 4~7번의 경우 화법과 작문의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면서 회의 상황을 바탕으로 고쳐 쓰기와 내용 추가하여 완성하기, 발화의 성격과 담화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 주었으며, 문법 영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EBS 교재에서 다룬 개념과 원리,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독서와 문학 영역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연계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독서 영역은 주로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학 영역은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한 경우가 많았다.

라. 유형별 세부 분석

1) 화법

화법은 EBS 교재에 나왔던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유형과 교재에서 다룬 핵심 제재와 논지를 활용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5번의 경우는 작문의 성격이 6~7번은 화법의 성격을 띤 문항들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문항으로,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0~143쪽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화법과 작문의 통합 구조에 보다 높은 실제적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작문

작문의 경우 4~5번은 화법 6~7번과 영역 통합형으로 출제된 문항으로, 화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의 중심 소재를 교재에서 가져와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과 실제성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8~10번 문항의 경우 수능완성 국어 182~183쪽에 수록된 자료에서 핵심 제재를 가져와 출제하였다.

3) 문법

문법은 4개 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12번과 13번은 동일한 지문 아래 묶인 세트 문

항으로,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06쪽, 220~223쪽에 수록된 개념과 원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음운의 체계를 탐구하는 11번,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14번은 각각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의 198~199쪽, 211~213쪽에 수록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출제된 문항이다.

4) 독서

독서는 3개의 지문 중 2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서양의 우주론과 중국의 천문학’을 다룬 27~32번은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66~67쪽과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164~165쪽에서 다루었던 지문의 핵심 제재 및 논지에 ‘중국의 천문학’을 결합하여 지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38~41번의 경우,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5~76쪽에 수록된 ‘딜레마의 논증’에 관한 지문에서 핵심 제재를 가져와 ‘가능 세계’의 개념에 접목한 지문을 구성하였다.

5) 문학

문학은 총 6편의 작품이 출제되었는데, 그 가운데 5개의 작품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6~280쪽에 수록된 박태원의 ‘천변풍경’,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81~286쪽에 수록된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 ‘오발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1~103쪽에 수록된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0~202쪽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임장군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79~81쪽에 수록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등이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다소 낯선 작품과 엮이거나 교재를 활용하여 다른 갈래로 제시된 부분이 있었으나 문학 영역 전반에 걸쳐 문항들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대표 연계 문항

1) 8~10번 : EBS 교재에 제시된 핵심 제재와 논지를 활용함.

11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83쪽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A]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자: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 저희는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 [A]에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1: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은 20세 [B]기 중반 이전까지 섬유 산업에서 급속히 진행된 자동화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자동화로 인해 일부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산업 전반으로 볼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2: 그동안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기계가 발명되었고, 그것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했는데 갑자기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로봇세가 도입되면 결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C]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기술의 발달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로봇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찬성 2: 로봇세 부과가 로봇 기술의 발달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봇의 기술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세를 감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인간의 능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 [D]입니다. 또한 로봇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봇세 부과는 무분별한 로봇 사용

2) 27~32번 : EBS 교재에서 다룬 핵심 제재 및 논지에 ‘중국의 천문학’ 내용을 결합하여 지문을 재구성함.

27~32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66쪽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았다. 하였고, 그것이 ㉠일으킨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A]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A]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케플러는 태양계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했다.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태양과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또한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다. 하지만 이러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발견은 경험적 관찰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행성이 왜 이렇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대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라 행성을 타원 궤도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 상태이므로 행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내내 행성을 밀어 줄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갈릴레이에 의해 관성의 법칙이 발견됨으로써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지금의 빠르기와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이후 뉴턴에 의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면, 즉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에 변화가 생겼다면 물체에 새로운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물체에 힘을 가해 발생한 가속도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역학 법칙으로 발전했다. 뉴턴은 그의 역학 법칙에 따라 행성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위해서는 궤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태양 쪽을 향해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뉴턴의 역학 법칙에 따르면, 행성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행성은 관성에 의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을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고 뉴턴은 생각했다. 그는 이로부터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만유인력'이 존재하며,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표되던 당시, 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데카르트주의는 행성 사이의 원거리 인력 작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작용뿐이며, 그러한 외부의 작용은 물체 간의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데카르트 역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란 불가능하며, 우주는 '에테르'라는 물질 입자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은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소용돌이 이론'을 주장했다. 즉 행성들이 마치 흐르는 강에 떠 있는 배처럼 거대한 에테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태양 주위로 운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우주관을 따르면 당시 학계는 두 물체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물질의 매개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뉴턴의 주장에 대해 자연 과학을 신비주의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 43~45번 : EBS 교재에서 다른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 함.

43~45번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79-81쪽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뜰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위(退位)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위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친한 선비 세상에 낯살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다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褸)에 무엇 싸고 삼목계(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돌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위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叉)*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뜰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